

베이비부머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검증

The Effects of Baby Boomers' Capabilities on Life Satisfaction -Verify the Mediator Effect of Network-

정숙균, 방희명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Sook-Kyun Jeong(wjdtnrbs@hanmail.net), Hee-Myung Bang(okbhm@nambu.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역량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 네트워크가 역량과 삶의 만족 간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대인관계역량과 개인역량은 네트워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네트워크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해결역량은 매개변수인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베이비부머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은퇴 이후 삶의 만족 향상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중심어 : | 베이비부머 | 역량 | 네트워크 | 삶의 만족 |

Abstract

The intention of this research lies in verifying whether the capabilities have an influence in raising their satisfac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Personal inter social skills and personal capabilities had a direct influence on the networking, and also on life satisfaction (networking acting as a mediator). However,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did not have a substantial influence on the networking (which here, works as a mediating variable). Therefore,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various measures which may advance life satisfaction by using the networking as mediator should be reviewed.

■ keyword : | Baby Boomer | Capability | Network | Life Satisfaction |

I. 서론

베이비부머(baby boomer)란 전쟁 이후 급격한 인구 증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의 9년간에 걸쳐 태어난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생애주기의 중년에 해당하는 이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6%에 달하는 약 713만 명으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에 걸쳐 현재의 근로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썰물 퇴직의 당사자들이다. 거대한 베이비부머 집단의 은퇴는 곧 기대수명이 길어진 노인계층으로 진입하는 과정에 있다. 이들 중 76.9%인 549만여 명이 현재 노

동시대에 몸을 담고 있어 베이비부머가 속한 연령구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아직까지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해마다 30-40만 명의 숙련된 고급 노동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가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은퇴는 숙련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여 노동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세대 간 조세 부담 문제, 주택경기의 침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8].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청년기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장년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부모 부양과 자녀의 교육과 결혼자금 등에 대한 부담과 더불어 고용의 불안정성, 취약한 연금준비 등으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까닭에 노후생활은 불안하기만하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후 주로 진출하는 숙박,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생존율은 전체의 절반 이상이 3년도 안 돼 문을 닫고 있다. 창업실패는 가게 빛 증가와 개인부도로 이어져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대한 처분 압력을 높이는 악순환을 불러 온다. 실패할 확률이 높은 데도 베이비부머들이 창업을 고집하는 것은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 이후의 미래의 상황에 대비해 보다 현실적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포럼[8]은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 준비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전수진, 박경규[15]는 고용 및 승진의 가능성의 지각에 사회관계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순돌, 성민현[16]은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김미령[3]은 베이비부머의 오랜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폭넓은 네트워크가 노후보장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라는 자아실현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최근까지의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경제활동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같은 노인연구 범주에 포함시키거나[7],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을 뿐 베이비부머의 세대적 특수성을 고려하거나 개개인 삶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가 은퇴 이후에도 만족도가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베이비부머의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이 지속적으로 노후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업종의 네트워크가 이러한 역량과 삶의 만족 사이를 매개하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역량

역량이란 다양한 심리적, 행동적 특성의 의미로 최초 개념화되어 특정한 상황에서나 직무수행 시 효과적이면서도 우수한 수행을 하게 되는 개인의 내적특성을 말하며, 직무수행을 잘 하는 사람의 개인의 능력특성을 말한다[6]. 즉 어떤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적 특성으로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관련한 감정과 생각의 개인적 수준, 대인관계 수준, 자조 노력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사회제도와 관련한 환경적 수준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조직이나 기타 영역에서 인적자원에 관한 결정을 돕는데 사용되고[12][17].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려면 특정자극에 대한 반응 능력뿐 아니라 상황에 도구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측정해야 하며, 삶 속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예언할 수 있고, 학습자가 배움의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흥민[13]의 역량평가에서는 역량을 자기혁신역량, 네트워크 구축역량, 전문성역량, 리더십역량, 전략적역량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석재[11], 이흥민[13]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 모델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문제해결역량은 직무에 관련된 전문적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조직 내외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위기를 관리하는 역량이며, 대인관계역량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역량이다. 또한 개인역량은 조직 내 시너지를 통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역량을 말한다.

2. 네트워크

사람들은 어디서나 항상 자신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왔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사람, 집단, 조직 또는 사회적 단위들이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교환에 개입하고 상호 행동하는 사회적 배열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는 결합과 응집을 위하여 사회적·인간적 상호행동을 추구한다[17]. 네트워크라는 말은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주요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대개 5가지가 있다.¹⁾ 첫째는 Plucknett의 개념규정으로, 네트워크는 목적 또는 목표를 공유하는 독립적 개인 및 기구들의 모임이며, 회원들은 자원을 제공하고 양방향의 교류와 의사소통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Engel은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관계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진행되는 과정으로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출현하는 대체로 공식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관계 양식이라고 정의했다. 셋째는 Creech와 Willard의 공식적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으로 각자의 연구와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고, 지식을 공유하며, 국가 또는 국제 차원에서 의사 결정자들의 요구에 부응해서 해결책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넷째, Carley와 Christie는 네트워크를 조직 간의 연합을 발전시키는 것을 가능케 하는 사회형태의 토대를 이루는 것으로 규정한다. 다섯째로 Milward와 Provan(2003)에 따르면, 네트워크는 조직이나 개인이 협력과정을 받아들이고, 공동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며, 단합된 통일체로서 행동을 시작할 때 형성된다고 한다. 이렇듯 베이비부머에게 역량과 네트워크가 갖는 중요성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어 온 네트워크[1][16]가 역량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은 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판단 혹은 자신의 기대에 대한 충족의

정도이며, 현재 삶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미래의 삶을 예측하는 기초가 된다. Neugarten(1961)는 생활만족도라고 표현하면서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Havighurst와 그의 동료들은 삶의 만족도를 현재의 지위와 활용에 대해 갖고 있는 정서적 만족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에 따라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 자신만의 잣대와 비교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한다[7]. 이와 같이 삶의 만족은 측정방법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과정적 측면을 분석하여 성과를 대리 측정하는 경우가 아직도 적지 않게 활용되고 있다[16]. 즉, 삶의 만족은 주로 이차적 기준에 두고 평가가 이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을 자아존중, 대인관계, 정서상태, 신체건강상태, 경제생활만족 등으로 구분하고, 베이비부머 역량이 네트워크를 매개로하여 이러한 영역별 삶의 만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4. 역량, 네트워크, 삶의 만족 간의 관계

역량은 성과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지식, 기술, 태도의 결합이므로(Parry, 1996) 역량 연구는 관리자 영역으로 확장된 성과(Boyatzis, 1982)이며 말은 직무에서 높은 성과와 연결되는 특성이기도 하다(Mirabile, 1997). 이와 같은 개념적 이해를 토대로 살펴볼 때 베이비부머들의 특성에 대한 적합한 인식과 공유하고 있는 가치체계에 근거한 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르게 나타난다. 기업 교육 담당자의 개인역량을 대상으로 한 김재환[6]의 연구에 따르면, 인적네트워크는 개별구성원이 수준 높은 지식을 보유할수록 개인의 역량이 집약되어 직무 만족 증대에 기여하고, 정현용[17]의 연구에서는 리더십과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조직성과와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문헌에 기초해 볼 때,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는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4]. 베이비부머에게 있어서 역량과 삶의 만족이 직간접적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1) Suzanne Taschereau and Joe Bolger, "Networks and Capacity," *European Center for Development Policy Management*, (September 2005), p. 2.

전제로써 역량과 삶의 만족을 매개하는 변수로서의 네트워크를 설정하고자 한다.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변수로서 네트워크는 한편으로는 역량과 직접적 관계에 놓여져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삶의 만족과 직접적 관계를 갖고 있다. 역량은 역량의 구조, 관리과정, 직원 업무활동 등 역량 전반에 반영되기 때문에 역량 구성원이 외부환경에 적응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통합해 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게 되는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역량과 네트워크는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6][10]. 네트워크와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성에 대한 직접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따라 객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를 언급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만족도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들 자신만의 잣대와 비교하여 스스로가 얼마나 만족하는가에 대해 판단이나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상과 같이 역량의 각각 특성에 대한 인식을 네트워크의 선행변수로서 추론할 수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은 네트워크의 매개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보장되고 개인의 역량강화와 제도적 지원으로 가능 할 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를 위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3][14][16]와, 네트워크를 매개로 한 다른 분야의 연구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5][9][15], 베이비부머 역량에 대하여 네트워크를 매개로 삶의 만족을 검증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량-네트워크-삶의 만족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관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역량과 관련요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매개효과로 하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구축하였다.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을 독립변수로 하여 삶의 만족을 종속변수로 하는 경로 및 각 변수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 사이에서 네트워크의 매개효과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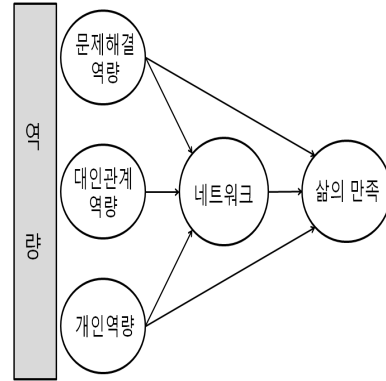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 가설1-1 문제해결역량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1-2 문제해결역량은 네트워크를 매개로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1 대인관계역량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2-2 대인관계역량은 네트워크를 매개로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1 개인역량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3-2 개인역량은 네트워크를 매개로하여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부머이다. 2012년 8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편의표집과 눈덩이표집에 의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배포한 설문지 400부 중 불성실한 응답을 한 34부를 제외한 366부의 유효한 설문지가 분석에 사용 되었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의 내생잠재변수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 매개변수는 네트워크이며 외생잠재변수는 베이비부머

역량이다. 본 연구에서 내생잠재변수인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을 ‘베이비부머가 자신의 역량에 따른 현재 지위와 활동에 대해 갖는 정서적 만족감’으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는 임연옥[14], 정순돌[16]의 노인의 삶의 질 예측모형 연구를 통해 개발한 삶의 질 척도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총6문항(사회 발전에 기여, 사회에서 인정, 사회일원으로 자부심, 긍정적 자아이미지, 경제활동 증가, 가족경제 안정에기여)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인 네트워크는 ‘서로 간에 관계를 만들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한 결과로 출현하는 대체로 공식적이고, 지속성을 갖는 관계 양식’이라 정의하고, 측정도구는 김은실[5], 신덕정[9]의 연구에 사용한 네트워크 관련 척도를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다. 네트워크는 총5문항(단체에 가입, 다른 동료와의 연계활동, 이해관계자와 정기적인 모임, 정보활용, 취업 박람회 등 참여)으로 구성하였다.

베이비부머 역량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측정도구는 이석재[11], 이흥민[13]의 핵심역량을 수정·보완 하여 사용하였으며, 역량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의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문제해결역량 4문항(분석력, 통찰력, 창의력, 전문성), 대인관계역량 4문항(감수성, 설득력, 갈등관리능력, 신뢰구축력), 개인역량 4문항(비전제시, 동의능력, 코칭력, 조정력)의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위 측정도구는 5점 리커트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로 합산점수가 높을수록 역량이 높다는 의미이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for Windows와 Amos 12.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구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자료의 정규성 또는 이상치를 검토하였고, 척도들의 구성타당도를 밝히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인들 간의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

equ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베이비부머 366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 특성에서는 남성이 60.9%, 여성이 39.1%로 남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령별 특성에서는 1958년생 (17.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959년생 (15.5%)로 나타났다. 학력을 살펴보면 중졸 24.3%, 고졸 59.2%, 대졸이상 10.6%, 기타에는 0.6%로 나타나 학력별 특성에서는 고졸(59.2%)이 전체 조사대상중 가장 많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1명이 26.7%, 2명은 45.3%, 3명은 23.1%, 4명은 0.9%, 4명 이상은 0.4%로 나타나 조사대상 중 2명이 45.3%를 나타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현재 경제활동 참가 여부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이 전체 81.9%를 차지하였으며, 여자보다는 남자가 78.3%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은퇴 시기는 이미 했음이 19.1%, 1년 후 15.7%, 2년 후 24.8%, 3년 이상 28.7%, 4년 이상 11.7%로 나타났다.

2. 변수의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

요인의 추출에 있어서는 구해진 자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요인의 수를 적절히 줄이기 위한 주성분 요인 분석 방식을 사용하였고, 요인의 회전으로는 직각회전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분석을 실시하여 신뢰도를 파악하였다.

2.1 외생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외생변수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는 [표 1]과 같이 12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 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문제해

결역량의 설명 분산은 26.69%, 대인관계역량의 설명 분산은 22.76%, 개인역량의 설명 분산은 22.27%로 도출되었다. 전체적인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71.74%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 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표 1. 외생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개 념	변 수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문제 해결 역량	문제해결역량1	.802	.195	.371
	문제해결역량3	.789	.305	.24
	문제해결역량2	.736	.402	.252
	문제해결역량4	.621	.301	.287
대인 관계 역량	대인관계역량4	.298	.818	.031
	대인관계역량3	.328	.752	.195
	대인관계역량1	.129	.638	.499
	대인관계역량2	.235	.623	.393
개인 역량	개인역량2	.354	.144	.807
	개인역량1	.228	.245	.760
	개인역량3	.448	.200	.659
	고유치	2.937	2.505	2.451
설명분산(%)		26.699	22.769	22.278
누적분산(%)		26.699	49.468	71.747
Cronbach's Alpha		.799	.865	.671

*p<.05 **p<.01 ***p<.001

2.2 내생변수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내생변수에 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같이 15개 문항 중 1개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각 요인별로 적재치를 살펴 0.6 이상인 변수들만 추출하였는데, 그 결과 삶의 만족, 네트워크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삶의 만족 요인의 설명분산은 26.25%로 나타났으며, 네트워크의 설명분산은 21.76% 나타났고, 누적 분산 설명비율은 67.92%로 나타났다. 또한 도출된 차원들의 내적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 분석결과 모든 차원들이 일반적으로 기준값 0.6을 초과함으로써 각 문항에 대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삶의 만족 요인 =0.883, 네트워크 요인 =0.872로 나타났다.

표 2. 내생변수의 탐색적 요인 및 신뢰도 분석

개 념	변 수	요 인 1	요 인 2	요 인 3
삶의 만족	삶의 만족2	.856	.048	.034
	삶의 만족1	.830	.106	.089
	삶의 만족6	.798	.135	.157
	삶의 만족3	.711	.138	.166
	삶의 만족5	.682	.209	.204
	삶의 만족4	.627	.238	.221
네트 워크	네트워크1	.212	.858	.201
	네트워크3	.231	.830	.231
	네트워크4	.249	.825	.262
	네트워크2	.198	.762	.218
고유치		5.398	4.766	3.263
설명분산(%)		26.254	21.763	19.908
누적분산(%)		26.254	48.017	67.925
Cronbach's Alpha		.883	.872	.711

*p<.05 **p<.01 ***p<.001

3. 측정모형 분석 및 모수치 추정

3.1 잠재변인간 상관관계분석 및 다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 검토

① 상관관계분석

모든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제해결역량은 네트워크와 정적상관($r=.461$)을 보였으며, 개인역량은 네트워크와 ($r=.519$) 정적 상관을 보였다. 삶의 만족은 ($r=.433$) 정적상관을 보였다. 대인관계역량은 네트워크($r=.511$)와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 ($r=.538$)과, 모형에 사용된 모든 잠재변인들은 서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여주었다.

표 3. 상관관계분석

	1	2	3	4	5
1	1				
2	.511**	1			
3	.531**	.539**	1		
4	.461**	.519**	.511**	1	
5	.381	.433**	.324	.538**	1

*p<.05 **p<.01 ***p<.001

② 다변량분석의 기본가정 검토

다변량 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극단치, 변량의 정규성, 다변량 가정, 다중공선성을 검토하였다. 변량의 극단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귀방정식을 통한 Cook의 거리(Cook's Distance)를 사

용하였다. 변량의 정규분포는 분포의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의 검토를 통해 평가할 수 있는데 절대 값을 기준으로 왜도의 경우 3이상, 그리고 첨도의 경우 10이상 일 때 변량이 정규분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자료들은 모두 왜도는 3이하이고 첨도는 10이하 이므로 정규분포의 가정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변량의 기본가정인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변량 분산 분석시 공분산행렬에 대한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과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Box의 동일성 검증(Box's M)에서는 공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각 유형별 공분산 행렬이 동일하였다. 또한 오차분산의 동일성에 대한 Levene의 검정도 여러 집단에서 종속변인의 오차분산이 동일하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지 않아 오차분산 역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성 검증은 Durbin-Watson의 d를 사용하였다. 완전 정적상관일 경우는 d값이 0이고 완전 부적상관일 경우에는 d값이 4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량이 모두 2에 가깝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량의 선형성을 알아 볼 수 있는 다중공선성은 분산 증가 요인의 점검을 통해 파악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분산 증가 요인이 10이상이면, 심한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조합하여 합성변수를 만들어야하는데 모두 10을 넘지 않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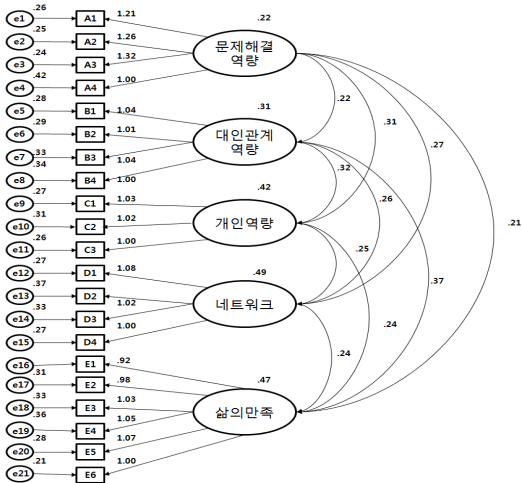


그림 2. 측정모형

3.2 측정모형의 분석

본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이 네트워크와 그리고 삶의 만족 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연구 모형에 대한 전체적인 적합도와 인과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인과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AMOS 8.0을 이용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에는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 네트워크, 삶의 만족을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

	χ^2	df	NFI	TLI	CFI	RMSEA	p
기준값	-	-	>.90	>.90	>.90	<.80*	>.05
연구 모형	521.437	928	.931	.922	.918	.059	.000

*p<.05 **p<.01 ***p<.001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901.523$ ($p<.001$)로 모형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완벽히 설명한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함으로써 모형이 적합하지 않지만 χ^2 검증은 귀무가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하여 너무 쉽게 기각이 되고,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존재함으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NFI=.931 TLI=.922, CFI=.918로 모두 .90이상이며, RMSEA=.059로 .80이하로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직접효과 검증

대부분의 경로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역량은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t=1.124$, n.s)을 미치지 못하였다. 대인관계역량은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력($t=3.144$, $p<.000$)을 보였으며 대인관계역량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는 증가($\beta=.361$)하였다. 개인역량이 네트워크에 미친 영향력도 역시 유의미($t=3.145$, $p<.000$)하였으며 개인역량이 증가 할수록 네트워크도 증가($\beta=.323$)하였다. 네트워크는 삶의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력($t=3.564$, $p<.000$)을 보

여주었으며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은 증가 ($\beta=.453$)하였다.

표 5. 경로계수 추정치

				t	p	
문제해결 역량	→	네트워크	.399	.184	1.124	.094
대인관계 역량	→	네트워크	.337	.361	3.144***	.000
개인역량	→	네트워크	.330	.323	3.145***	.000
문제해결 역량	→	삶의 만족	.044	.767	2.743*	.033
대인관계 역량	→	삶의 만족	.100	.231	2.394	.071
개인역량	→	삶의 만족	.207	.257	2.765**	.002
네트워크	→	삶의 만족	.178	.453	3.564***	.000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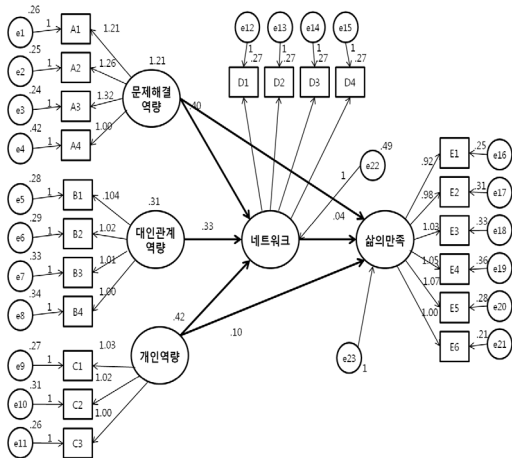


그림 3. 경로계수

② 간접효과 확인(매개효과)

매개변수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직접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제안된 공식을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두 변수의 간접효과는 외생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내생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곱한 값으로 정의하였으며, 공식은 다음과 같다.

$$Z = \frac{ab}{\sqrt{(SE_a^2 SE_b^2 + a^2 SE_b^2 + b^2 SE_a^2)}}$$

표 6. 매개변인 효과분석

	경로	z	p
Ⅶ-1	문제해결역량 → 네트워크 → 삶의 만족	1.744	.097
Ⅶ-2	대인관계역량 → 네트워크 → 삶의 만족	3.004	.003*
Ⅶ-3	개인역량 → 네트워크 → 삶의 만족	2.090	.001**

* $p<.05$ ** $p<.01$ *** $p<.001$

soble-test를 통한 결과 [표 6]과 같이 문제해결역량 경로의 매개효과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매개변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문제해결역량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있어 네트워크는 매개 하지 못하였다 ($z=1.744$, n.s). 대인관계역량과 삶의 만족 간에는 네트워크($z=3.004$, $p<.01$)효과적으로 매개하였다. 개인역량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는 효과적으로 매개 ($z=2.090$, $p<.001$)하였다

③ 효과분해

요인 사이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총 효과를 측정하였다.

표 7. 총효과 분해

		문제해결역량	대인관계역량	개인역량	네트워크
총효과	네트워크	.214	.361	.323	-
	삶의 만족	.179	.317	.122	.144
직접효과	네트워크	.214	.361	.323	-
	삶의 만족	.137	.235	.052	.081
간접효과	네트워크	-	-	-	-
	삶의 만족	.042	.082	.070	.063

* $p<.05$ ** $p<.01$ *** $p<.001$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해결역량의 총 효과는 .214로 이는 직접효과의 결과이다. 네트워크에 미치는 대인관계역량과 개인역량의 총 효과는 각각 .361과 .323이다. 이는 직접효과의 결과이다. 다음으로 삶의 만족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문제해결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친 총 효과는 .179로 직접효과의 크기는 .137이고 간접효과의 크기는 .042로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크다. 대인관계역량의 총 효과의 크기는 .317이고 직접효과의 크기는 .235, 간접효과의 크기는 .082로 직접효과의 크기가 더 컸다. 다음으로 개인역량의 총 효과는

.122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접효과의 크기 .052와 간접효과
크기 .070의 합의 결과이다. 간접효과 크기가 더
컸다. 삶의 만족에 미치는 네트워크의 총 효과는 .144로
이는 직접효과의 .081과 간접효과 .063의 영향이다. 직
접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의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은
퇴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역량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에서 네트워크가 매개효과로 작용하는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베이비부
머가 지각하는 삶의 만족에 이르는 인과관계를 분석하
는 동시에 네트워크가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을 향상
시켜줄 수 있는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통계적인 검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의해 도출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을 살펴보면 먼
저 가설1-1에서 문제해결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
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설1-2에서 문제해결역량은 매개
변수인 네트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가
설2-1에서 대인관계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가설2-2의 대인관계역량은 네트
워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가설3-1의 개인역량은
삶의 만족에 정(+)
적인 영향을 미쳤고, 가설3-2의 개인
역량이 증가할수록 네트워크는 활성화되었다. 둘째, 가
설2-2와, 가설3-2에서 매개변수인 네트워크가 활발할
수록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은 증가하였다. 셋째, 다음
으로는 매개변수의 가설검증을 확인하는 sobel-test를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두개의 경로의 매개효과
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미한 매개변수 효과를 보이고 있
었다. 먼저, 가설1-2에서 문제해결역량과 삶의 만족 간
의 관계에 있어 네트워크를 매개하지 못한 반면, 가설
2-2 대인관계역량과 가설3-2 개인역량은 삶의 만족 간
의 관계에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매개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은퇴시기와 맞물려 경제적 추락의 위험이 커지
는 베이비부머의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중
요한 요인이 베이비부머 역량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베
이비부머의 대인관계역량과 개인역량이 강화될수록 네
트워크의 활성화와 삶의 만족이 증가하는 만큼 향후 베
이비부머의 지속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서는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베이비부머 육성에
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베이비부
머에게 지역의 산업체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개인역
량을 강화 시키는 정책을 마련하여 재취업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점차 정서적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베이비부머에게 지방과 중앙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네
트워크를 구축하여 삶의 만족으로 연계될 수 있는 민·
관의 사회적 지지망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베이비
부머가 은퇴와 동시에 수입이 끊겨 빈곤계층으로 갑자기
추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 50대 초반부터 준비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적 혹은 사적연금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비정규직 고용에 머
물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정
규직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고용 안정성
마저 낮은 수준이므로, 직능의 수준을 높이지 않는 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없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줄
일 수 없을 것이다. 즉, 비정규직이 많은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의 강화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근로소득 불평
등 완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삶의 만족과도 직결된
다할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베이비부머
가 상대적으로 폭 넓은 취업기회를 갖게 되어 은퇴 후
에도 갑자기 삶의 질이 추락하는 현상을 방지 할 수 있
도록 다양한 각도의 네트워크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문헌

- [1] 김경식, “사이버 스포츠서포터스 공동체의 사회
적관계와 사회적자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

11권, 제3호, pp.386-395, 2013.

[2] 김두선,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공공조직의 조직문화 비교분석 : 위계규범성, 고용안정성과 조직역량 간의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3] 김미령, “베이비붐세대, X세대, 준고령세대 여성의 삶의 질 구성요소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회춘계학술대회*, pp.73-88, 2010.

[4] 김민석, *개인적 네트워크 특성이 사회적기업 발전 모형에 미치는 영향 : 구조적 특성과 관계적특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5] 김은실, *사회적 네트워크가 개인 및 집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 다수준 접근법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6] 김재환, *기업교육 담당자의 개인역량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7] 리혜근, 하규수 “일상생활요인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pp.280-292, 2012.

[8] 보건복지부포럼, “베이비부머의 노후소득 준비 현실정책과제”, 제196호, pp.63-72, 2013.

[9] 신덕정, *사회적 네트워크가 직무태도 및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 관계적 자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10] 이경민, *기업역량, 경영전략, 경영성과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 제약 기업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1] 이석재, *18가지 리더십 핵심역량 개발하라*, 김앤 김복스, 2011.

[12] 이혜남, 임청환, “방사선사의 조직문화와 셀프리더십 유형으로 본 조직유효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1권, 제3호, pp.292-300, 2013.

[13] 이홍민, *역량평가 : 인적자원 역량모델 개발과 역량평가*, 리더리드출판사, 2009.

[14] 임연옥, 박재연, 윤현숙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부모 세대와의 비교”, *한국노년학회 춘계학술대회*, pp.89-102,

2010.

[15] 전수진, 박경규 “사회 네트워크가 고용 및 승진 가능성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정보 접근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경상학회*, 경산논총, 제27권, 제1호, pp.1-27, 2009.

[16] 정순돌, 성민현, “연령집단별 사회적 자본과 삶의 만족도 관계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제32권, 제4호, pp.249-272, 2012.

[17] 정현용, “리더십-팔로워십 유형 결합이 행정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pp.179-188, 2014.

저 자 소 개

정 속 균(Sook-kyun Jeong)

정희원



- 2007년 2월 : 성산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3년 2월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관심분야> : 노인복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방 희 명(Hee-Myung Bang)

정희원



- 2007년 8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관심분야> : 노인복지, 사회복지 정책, 가족복지